

“시민과 함께 ‘더 큰 군산’ 만들 것” 익산시, ‘100원 버스’ 지원 확대

강임준 군산시장, 민선 8기 3년 성과·지속 가능 성장 위한 4대 미래전략 발표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4대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산이 그간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지방 균형발전을 군산이 선도하여 시민과 함께 ‘더 큰 군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군산은 위기 속에서도 좌절 대신 연대, 주저함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라며 지난 3년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일례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와 군산사랑상품권 누적 유통액 3조 원 돌파, 7,000개 강좌와 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전환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8,000여 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군산형 RE100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군산이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도 강조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전면 무상화, ‘공부의 명수’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강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체감형 교육복



지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민생 혁신 성과로는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심야 어린이병원·약국 운영 △고위험지역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도심 속 시민 친화 숲 조성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군산시민의 단합으로 쟁취한 ‘새만금 신항만 원포트 지정’은 시민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인 대표 사례로, 군산이 광역 통합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며 시민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어 강 시장은 정책 완성을 위한 본격 실행 단계에서,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4대 전략을 발표했다. 4대 핵심 전략은 △에너지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 △조선·미래차 중심 첨단제조업 재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 △균형발전 선도도시 ‘더 큰 군산’ 완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에너지 기반 신성장 전략으로 새만금 대양광 2공구 운영과 해상풍력 1GW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장하고, RE100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전기를 생산·수출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둘째,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선산업 재편과 전기차·이차전지·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완결형으로 구축해 첨단제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주기업 중심의 테스트 베드, 인력양성, 국가공모 연계 등을 통해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교육과 복지, 심리 돌봄과 주거 지원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와 가족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믿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더 큰 군산’을 향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만 원포트·청정에너지 클러스터·지역 주도형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의 선봉에 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6~18세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절감 효과

익산시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시는 7월 1일부터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어린이(6~12세) 대상 ‘100원 버스’ 정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익산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 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어린이 대상 정책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카드로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부터는 반드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어린이도 전용 카드로 전환해

야 하며, 미전환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교통카드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부받은 카드는 앱에 등록 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도 충전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급은 월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행복더하기’ 앱에 쿠폰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 쿠폰을 충전해 다시 사용하면 된다.

전월 이용 횟수에 따라 어린이는 월 최대 3만 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 시내버스 이용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단말기 미태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이번 정책을 교육발전특구 사업 및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백제왕도 익산’ 정체성 입증 위해 출장길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세계유산 10주년 맞아… 익산시, 일본 방문

익산시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10주년을 맞아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일본 출장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세계유산 복원 정비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익산 백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장의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닷새간 일본 오사카와 나라, 교토를 방문해 ‘백제 문화유산’과 관련한 한일 공동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출장에는 시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학술 전문가가 동행해 일본 현지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아스카촌에 있는 아스카 자료관과 비조사, 나라 평성궁 등 백제와의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의 문화유산 복원 정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일본 문화유산 연구의 산실인 나라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모토나가 마코토 소장을 만나 세계유산의 복원

정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이날 출장단은 일본의 문화유산 정책 분야의 권위있는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백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익산과 일본의 연구 동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7월 1일에는 일본 황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토 창원원을 방문해 하가시후시미 지코 문주와 환담을 나누고 ‘관세음응합기’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관세음응합기’는 1971년 교토대학 마키다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된 유산이다. 백제 무왕의 익산천도와 정관13년(639년) 제석사의 화재 등이 기록돼 있어 익산천도를 증명하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방문단은 일본 4대박물관 중 하나인 ‘나라국립박물관’을 찾아 이노우에 요이치 관장과의 면담도 진행한다.

정 시장은 익산이 국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와 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7세기 백제 불교문화가 꽃피운 왕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익산 백제문화가 일본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전시 협력과 학술 교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달팽이공방’ 사업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

군산시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체계 ‘달팽이공방’이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문화 소통을 이끌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달팽이공방’은 미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고, 전시·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서 군산 명소를 담은 트라이트란 컵을 선보여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기도 했다.

현재 ‘달팽이공방’은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5곳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달팽이공방을 통해 시민들과 발달장애 예술인을 잇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축제,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포용적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중앙동 치킨로드

지원한 할인 이벤트 진행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에서 맛과 혜택,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름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7월 1~8월 31일 두 달간 ‘치킨로드 여름맞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앙동 치킨로드에 입점한 연품닭(1호점), BBQ문화점(2호점), 삼남극장(3호점) 등 총 3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점포별 할인과 함께 지역화폐 ‘다이로움’ 결제 시 10% 추가 지급 혜택이 더해져 시민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연품닭은 식사 메뉴 10%, 주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BQ문화점에서는 전화 방문 포장 시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4,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삼남극장은 전 메뉴 10% 할인과, ‘공원이 있는 식당’이라는 특색을 살려 매주 금요일에는 식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3일간 열전 마무리

전국 33팀·700여명 참가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 전국 여성야구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달구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익산시는 6월 21일, 22일,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14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자야구연맹과 익산시아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익산시아구국가대표훈련장과 보조구장, 리틀야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당초 6월 14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우



천으로 일주일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33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익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된

대회로, 해마다 여성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며 성장해왔다. 올해 대회는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챔피언리그와 퓨처리그로 나뉘어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졌다.

결승전이 치러진 29일 챔피언리그는 리얼디아몬즈팀과 블랙펄스팀이, 퓨처리그는 태그업팀과 TEAM ONE팀이 맞붙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챔피언리그 결승에서 리얼디아몬즈팀이 17득점에 승리를 거머쥐었고 퓨처리그 결승은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가운데 14대11로 태그업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